

섬유

수급동향

94년 섬유산업은 내수·수출경기 모두 호황을 보였다.

특히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 수출이 당초 목표 167억8000만달러 보다 3억2000만달러 정도 초과한 171억달러를 달성하였다.

품목별 수출은,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중심으로 합섬직물과 사류가 주도하였으며, 의류는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가격경쟁력 열세로 부진을 보였다.

수출대상국별로 보면 홍콩,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지역 중심으로 수출증가세가 높았고 미국, EC, 캐나다, 사우디 등 기존 주력시장은 수출이 감소되는 등 섬유수출면에서도 지역편중현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섬유부문 해외투자 실적 (단위 : 개수, 100만달러)					
구 분	1990 이전	1991	1992	1993	1994.상반기
기업수	193	266	389	597	841
투자금액	326	409	515	715	919

자료) 섬유산업연합회

주) 기업수 및 투자금액은 누계치임.

섬유원자재 가격동향 (단위 : 달러/MT)					
구 분	1994				비 고
	1/4	2/4	3/4	4/4	
원면 (\$/LBS)	84.25	80.00	76.75	96.75	M 1 3/32인치
원 모	6,650	8,160	10,600	8,700	그리저울 66수
P T A	680	710	755	840	폴리에스테르원료
카 프 락 탐	1,150	1,200	1,250	1,450	나이론 원료
AN 모 노 머	600	650	770~840	850~1,100	아크릴릭 원료

자료) 각 섬유관련단체

섬유수입은 93년보다 10억달러이상 증가한 50억~51억달러에 이르렀다. 93년과 같이 원면, 원모, 화섬기초원료 등 섬유 기초원자재는 증가되지 않은 반면, 의류와 직물류의 수입이 대폭 증가되었다. 고가의의류는 EC, 미국, 일본으로부터의 직수입, 중저가의 의류는 중국, 동남아시아지역으로부터 기획수입품이 증가되었다.

94년 섬유 수출의 특징은 92년까지 주시장이었던 미국, EC, 일본 등 3개시장의 비중이 93년 50% 수준에서 94년에는 40% 이하로 더욱 낮아졌으며, 수출 주종품목도 의류중심에서 직물류 중심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섬유류 수급동향 (단위 : 1000톤)				
구 분		1993	1994	1995
공 급	국 산	1,725	1,850	1,960
	수 입	1,096	1,180	1,300
	계	2,821	3,030	3,260
수 요	수 출	2,036	2,190	2,360
	내 수	785	840	900

자료) 섬유산업연합회

섬유류 수출단가 추이			
구 분	1993	1994	1995
수출액(100만달러)	15,877	17,100	17,800
수출물량(1000M/T)	2,036	2,190	2,360
평균수출단가(달러/Kg)	7.81	7.80	7.50

자료) 섬유산업연합회

섬유류 수입증가세는 완제품인 의류가 가장 높으며 의류의 수입형태가 고가품은 선진국 브랜드제품의 직수입, 중저가의 의류는 국내기업의 기획수입품으로 이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종 섬유제품의 내수경기는 여성복과 아동복, 캐주얼의류의 경우 비교적 활황을 보인 반면, 남자용 정장류는 부진하였다. 섬유업종별로 보면 화섬, 화섬직물, 염색업종이 93년수준을 상회하는 양상이었으나 의류, 모방적, 면방적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섬유산업의 국내 투자는 경기동향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합섬직물, 화섬, 염색가공업종의 자동

화·성력화 시설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 의류, 모방, 면방업종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반면, 국내투자가 부진한 업종들의 해외투자가 활발하였는데 특히 중국, 동남아, 중남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94년에는 원면, 원모, 화섬기초원료 등의 원자재가 세계적인 부족현상으로 인해 94년 초부터 가격상승이 계속되어 왔다. 3/4분기 이후 원모가격이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원면과 PTA, 카프로락탐, AN 모노머 등 화섬기초원료의 가격상승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섬유제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원은 87년의 78만명을 기점으로 88년이후 매년 감소하여 오다가 92년 50만명에서 93년 46만명, 94년말에는 45만명 선으로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섬유제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94년 인력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력을 상반기 5650명, 하반기 7523명 등 총 1만 3173명을 수입하였다.

섬유산업 국내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1994	1995	1995/1994 증가율
투 자 액	10,900	12,000	10.1

자료) 각 업종별 단체, 회원사 중시

차별화 소재개발 및 패션제품 수출비중 (단위 : %)			
구 분	한 국	선 진 국	비 고
차별화 소재	15	65	(이 태 리)
패션제품 수출비중	2	55	(이 태 리)
		~42	(프 랑 스)

국내 화학섬유 생산실적 (단위 : 1000M/T)						
구 분	재 생 섬 유			면합성섬유		
	Viscose Rayon			Acetate		
	Filament	S.F	계	Filament	S.F	계
1984	10,569	-	10,569	2,183	5,905	8,088
1985	11,619	-	11,619	2,156	5,913	8,069
1986	11,771	-	11,771	2,054	5,010	7,064
1987	12,004	-	12,004	2,141	6,603	8,744
1988	11,924	-	11,924	3,200	6,532	9,732
1989	10,833	-	10,833	4,532	7,250	11,782
1990	10,585	-	10,585	5,155	7,226	12,381
1991	5,338	-	5,338	5,635	7,000	12,635
1992	2,799	-	2,799	6,351	7,213	13,564
1993	734	-	734	6,140	7,931	14,071
1994	-	-	-	5,985	8,439	14,424

섬유산업의 업종별 시설 노후도(1993) (단위 : %)					
구 분	방 적	제 직	편 직	염 색	봉 제
노 후 도	77	36	49	40	41

자료) 섬유산업연합회 회원단체

구조개선을 위한 필요 자금지원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방 적	화 섬	제 직	편 직	봉 제	염색가공	계
자 금	3,000	2,840	5,850	3,250	920	1,500	17,360

업종별 인력부족률(1993) (단위 : %)							
구 분	전 체	원 사	직 물	염 색	직물제외류	편물제외류	부직포
부족률	11.8	9.7	15.9	12.9	9.5	14.7	13.8

자료) 섬산업 회원단체

경기전망

UR 타결이후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향후 국내외 섬유교역이 자유경쟁 원칙에 의해 형성되어감에 따라 강한 국제경쟁력만이 생존의 유일한 길로 접어들었다.

선·후진국 어떤 국가든 내수시장 교란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GSP 10개년 계획(1995. 1~2004. 12) 운용이 95년1월부터 시행되어 GSP 공여가 점진적으로 중단되었다.

다음으로는 섬유교역의 지역화 양상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및 향후 중남미를 포괄하는 경제통합 목표로 NAFTA(북미자유협정)가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EC) 12개국과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5개국을 포함한 17개국이 유럽 경제지역(EEA)을 창설하였고 ASEAN 6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경제권(EAEC)을 구성할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세계교역이 지역화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또 섬유기술과 운영방식의 고도화 양상을 지적할 수 있다.

기술과 경영방식의 진전에 의해 자본, 기술집약형으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공정에서 성력화·

고급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과거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구조로의 시스템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섬유 소비형태가 더욱 개성화·고급화하고 생산과 유통의 라이프사이클이 계속 단축되고 있으며 섬유용도가 차별화·고부가가치화된 신소재 개발 및 산업용·가정용 등 비의류용 섬유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95년 섬유류 공급 중 국내생산은 화학섬유 중심으로 이루어져 94년보다 5.9% 증가한 196만톤, 수입은 18.2% 증가한 130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섬유류 수요 중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94년보다 7.8% 증가한 236만톤, 내수는 7.1% 증가한 9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95년 섬유 수출액은 94년보다 4%~5% 증가한 178억~180억달러가 예상되고 있으며, 품목별로 보면 95년 역시 직물과 사류가 수출을 주도하고 의류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별로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와 일본시장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94년 부진하였던 미국과 EC시장도 해당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섬유수출이 완제품인 의류중심에서 중간재인 직물류 중심으로의 비중이 증대되는 등 섬유수출 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총 섬유 수출단가는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화학섬유 생산실적													(단위 : 1000M/T)	
구 분	합 성 섬유												총 계	
	Acrylic S.F	Nylon				Polyester			Polypropylene			합 계		
		Filament	Mono Fil	S.F	계	Filament	S.F	계	Filament	S.F	계			
1984	162,660	128,826	109	4,348	133,283	240,436	210,658	451,094	952	-	952	747,989	766,646	
1985	163,804	133,701	83	4,659	138,443	274,563	234,429	508,992	431	-	431	811,670	831,358	
1986	164,944	136,211	149	3,467	139,827	299,705	257,484	557,189	-	-	-	861,960	880,795	
1987	178,922	151,129	317	5,587	157,033	328,136	306,070	634,206	-	-	-	970,161	990,909	
1988	190,917	167,906	273	5,580	173,759	412,194	338,235	750,429	-	-	-	1,115,105	1,136,761	
1989	189,656	173,334	-	5,026	178,360	455,494	366,286	821,780	-	-	-	1,189,796	1,212,411	
1990	184,333	198,199	-	4,820	203,019	474,114	408,280	882,394	-	-	-	1,269,746	1,292,712	
1991	182,832	217,478	-	2,708	220,186	520,276	440,833	961,109	-	-	-	1,364,127	1,382,100	
1992	187,007	233,680	-	4,080	237,760	585,231	445,453	1,030,684	-	-	-	1,455,451	1,471,814	
1993	191,433	232,015	-	4,707	236,722	663,991	489,243	1,153,234	-	-	-	1,581,389	1,596,196	
1994	193,457	246,093	-	6,076	252,169	769,651	457,495	1,227,146	-	-	-	1,672,772	1,687,196	

95년 섬유산업의 국내 투자는 화섬과 화섬직물위주로 신증설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면방, 모방, 편직, 염색가공 분야는 자동화·성격화 시설위주의 개체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투자 분야에서도 94년 상반기 중 840여개 기업이던 것이 94년말 900여개, 95년 말에는 1000개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심의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기반의 세계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제조업의 고용인력은 94년말 45만명선에서 95년에는 더이상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설비와 생산공정이 자동화, 첨단화함으로써 기술과 기능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고, 국내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섬유 유통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외인력의 수입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95년 면방직업은 인력감소에 의한 생산감소 및 시설의 해외이전이 계속됨에 따라 국내생산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이 과다한 면사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파키스탄 중심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움직임이 있어 대일 면사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5년 원면생산은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선·후진국의 소비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제 원면가격이 94년에 이어 또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섬은 세계적인 경기회복과 국내 경기활성화에 힘입어 94년과 같이 95년에도 생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4년부터 겪고 있는 PTA, 카프로락탐, AN 모노머 등 화섬기초원료는 세계적인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폴리에스테일 필라멘트가 생산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기초원료인 PTA의 확보가 기업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방적업은 생산물량의 증가보다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체제로의 발전이 예상되며, 국제원모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내수시장에서는 제품의 고급화·패션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이나 수출은 가격경쟁력 열세에 따라 94년과 같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는 노후시설 개체 및 자동화 투자가 지속되고, 공정개선 및 물류개선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94년 염색가공업은 경쟁국과 후발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전반적으로 침체되었으나, 95년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품종 소롯트의 고부가가치화 생산체제로 서서히 진행될 것이며, 비의류용 섬유소재 가공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합섬원료 입출고현황												(단위 : M/T)
구 분	Chemical Wood Pulp			Caprolactam			A.N. Monomer			Acetate Flake		
	입 고	출 고	재 고	입 고	출 고	재 고	입 고	출 고	재 고	입 고	출 고	재 고
1988	13,993	13,277	1,708	190,374	192,092	4,140	189,414	185,998	30,921	9,562	9,535	232
1989	12,323	12,221	1,810	208,234	207,746	4,628	188,966	183,535	36,352	11,427	11,496	163
1990	11,408	12,128	1,090	236,415	235,496	5,547	182,718	178,923	40,147	11,996	11,979	180
1991	8,025	6,598	2,517	243,915	244,978	4,739	181,577	181,879	39,845	12,841	12,785	236
1992	1,975	3,537	955	266,555	267,946	3,999	183,129	177,236	45,738	13,890	13,462	664
1993	200	956	-	261,415	260,763	4,653	181,985	182,874	44,849	13,677	14,050	291
1994	-	-	-	295,145	289,680	10,117	161,008	191,844	13,229	13,846	13,868	243

구 분	Chemical Wood Pulp			DMT			EG			TPA		
	입 고	출 고	재 고	입 고	출 고	재 고	입 고	출 고	재 고	입 고	출 고	재 고
1988	-	-	-	21,271	21,645	1,073	308,085	308,773	15,213	732,157	721,681	30,877
1989	-	-	-	16,720	16,946	847	365,748	367,387	13,574	812,776	821,378	22,275
1990	-	-	-	12,717	12,847	717	424,084	423,157	14,501	864,941	855,084	32,132
1991	-	-	-	17,535	17,718	534	459,705	457,356	16,850	1,001,107	1,014,066	19,083
1992	-	-	-	19,700	19,586	678	475,059	471,981	20,758	1,114,756	1,118,395	16,381
1993	-	-	-	20,246	20,705	219	548,355	553,123	15,990	1,340,295	1,333,361	23,327
1994	-	-	-	24,000	20,646	3,573	598,939	595,256	17,322	1,422,446	1,426,753	16,843

EU지역의 AZO계 염료의 사용금지에 따라 염료수급의 불안정이 예상되고, 대체염료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염색가공업은 아직까지 해외진출이 활발치 않으나 95년부터는 해외 진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투자도 신규기업에 의한 투자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직물공업은 폴리에스테일 직물을 중심으로 합섬장섬유 직물의 생산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면직물은 원면 생산국의 생산증가에 따라 국내수입이 증가하고 가격경쟁이 열세인 국내 면직물 생산은 감소가 예상된다.

모직물은 이태리산 모직물의 수입증가와 국제경쟁력 약화로 국내생산의 감소가 예상되며, 견직물의 국내생산은 생사에 대한 수입자유화 및 국내생사 사용의무를 철폐하지 않는한 생산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95년 섬유산업은 6월 직물공업의 합리화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대기업 및 일부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직물기업의 과당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니트업종은 스웨터 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활발한 생산활동은 물론 신소재를 통한 편직원단의 대폭적인 생산증가 및 수출증가가 예상되며,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패션니트제품의 생산증가도 기

대된다.

직물제 의류는 수출환경이 크게 개선될 기미가 없어 수출 부진이 예상되며, 내수는 94년수준 이상의 활황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생산 기반여건이 어려워 해외진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직물의류업계는 니트업계와 함께 북한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물제 의류업종 또한 니트업종과 함께 기능인력이 가장 부족한 업종이나 무등록 공장이 많아 해외인력 수입시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써 섬유업종 중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이다.

경쟁력

섬유업종은 시설노후도가 높아 단위생산성이 낮고 노동집약성이 높은 실정이다.

제조업 취업기피 및 해외인력 수입의 어려움으로 인한 섬유업계의 인력부족도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고 있다.

섬유산업의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70% 수준에 불과하며, 화섬의 경우 선진국의 85%, 염색가공분야는 60%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다. 더욱이 선진국에 비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특히 미흡한 실정이다.

차별화 소재의 개발이 저조하고 패션제품 수출비중이 무시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표적인 가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Down Stream으로 갈수록 영세하여 기술과 정보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중소섬유기업의 대부분이 임직 가공업으로 전문화나 특화가 거의 되어있지 못한 실정으로 임직 가공업 비중이 직물 75%, 염색 90%, 니트 및 봉제 75%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생산체제면에서 동종기업간 수평계열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업종간 수직계열화 체제도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95~97년중 노후시설 개체와 자동화를 위한 필요자금 지원규모는 총 1조736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섬산업과 전경련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는 공동으로 섬유업계가 필요한(3년간 소요) 1조7360억원의 섬유산업 시설 구조조정자금을 정부 및 관련기관에 지원요청 건의 (금리 5% 이하, 상환 8년 이상)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업종간 협력강화가 긴요한 실정으로 생산의 전문화, 기업의 특화유도 및 섬유산업의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와 함께 이공정간 기업군의 계열화와 협업을 추진하는 한편, 상품기획력이 있는 상사 또는 원사 생산기업과 직물업계, 염색업계, 패션디자인업체와의 계열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섬유산업 및 유통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유통구조 조사와 함께 Q.R시스템 개발의 확산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섬유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에도 힘써야 할 것인데, 사양산업시하는 일부의 인식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섬유인들의 섬유산업에 대한 확신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섬유산업의 기술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합 섬유기술연구소 및 산지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종합 섬유기술연구소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섬유부문 발전계획에 근거한 바 현재 생산기술연구원내 섬유기술실용화센터를 독립시킨후 확대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요예산은 정부 및 업계출연금 약 300억원이 예상된다.

산지 연구센터는 대구섬유연구개발센터에 94~95년중 105억원을, 비산의 염색가공기술연구소 설립 또한 7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의 섬유패션 디자인센터 건립에도 100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

또한 섬유전문기술 및 기능인력의 확보도 중요한 바, 1단계인 장단기적인 인력확보방안에 따라 단순생산직 인력난 해소방안의 단기적인 대책, 2단계는 전문기술 및 기능인력 확보방안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외인력의 한시적 계속 수입을 지원(소요시기 : 94~2000년(6년간), 부족인원 : 5만7000명 규모)하는 동시에 기술인력양성 확보 지원을 위해 생산기반기술 조성에 관한 법, 산업기술대학법 제정을 통해 섬유기술대학을 설립하고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며 인력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움도 개최해야 할 것이다.

또 섬유소재 개발 및 품질의 안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신소재 개발의 촉진과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공업발전기금 등 소재 개발자금을 연간 100억원 가량 지원하고 소재편람 제작공급 및 국내외 개발 신소재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원사 및 소재의 품질향상과 균일화 유도도 중요하다. 따라서 외국 일류제품의 품질분석 및 국산과의 비교 설명회를 개최함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첨단 염색가공기술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키 위해 고감성·고기능성 염색가공기술 등 4개 분야에 대해 94년부터 2000년까지 총 1100억원을 투입하여 과제별로 집중 개발하고 염색산업을 환경 친화적인 기술집약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비의류용(산업용) 섬유의 개발촉진을 위해서는 산업용 신소재 및 핵심 생산기술 개발 촉진차원에서 섬유산업을 첨단기술산업으로 지정 육성하는 한편, 국제산업용 섬유협회와 협력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패션디자인 인프라 강화 등 패션디자인의 지속적 육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패션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인프라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섬산업내 1100평에 패션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패션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과 함께 패션정보의 수집 및 보급을 촉진하고 패션봄 조성을 위한 해외전시회, 쇼 행사의 적극 참가 및 참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브랜드 개발 및 수출확대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명 Trading회사와의 제휴로 판매를 글로벌화하고 자가상표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유도 및 홍보강화와 더불어 선진국 시장에서 국산 생산제품의 성가제고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제품기획력도 제고시켜야 한다.

아울러 섬유제품의 마케팅 노력도 강화해야 하며 해외마케팅 전략 조사연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산학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대학교수의 현장근무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기관 실습기자재 및 시설기증에 주력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지속적 정보수집과 대중국 통상 및 투자사절단 파견, 미국·EU·일본 등과 대중국 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중국 진출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대북 진출방안도 적극 추진하여 섬유 개별기업 중심의 진출과 함께 대·중소기업 협력동반 진출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 96 화학연감>